

이지상의 ‘여행과 삶’



추억과 상상을 넘나드는 여행

요즘은 해외여행 못지않게 국내 여행도 활발하며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볼 게 많고 다양하다. 특히 자연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아름답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철에는 곳곳에서 꽃 잔치가 열리고, 여름에는 푸른 산과 계곡과 시원한 해변이 사람들을 부른다.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산과 겨울의 하얀 설경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환상적인 풍경이 된다.

그뿐만아, 우리의 긴 역사와 관련된 문화재는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돌아보는 여행은 단순한 구경을 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과 배움의 행위다. 이처럼 국내 여행의 즐거움과 유익함은 매우 많다.

해외여행이 붐몰처럼 타지던 199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여행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 이때를 전후해 민간 기관에서도 토·일요일에 쉬게 됨으로써 여가 활동으로서의 국내 여행은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또한 자전거 여행, 캠핑 여행, 도보 여행 등 여행 방법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국내 여행은 해외여행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여정도 쉽게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어 문제도 없고 음식도 다양하고 풍성하며,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잘 정비된 관광지를 편하게 관광할 수 있다.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홍보다. 방송에서 수많은 여행 정보나 맛집을 소개하는 바람에 전국이 맛집 열풍이다. 어딜 가나 방송에 출연했다는 간판이 걸린 집들 앞에는 관광객이 줄을 서고, 인터넷 블로거들을 통해 소개된 맛집들을 여행자들이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보인다. 전국의 축제나 행사가 대개 비슷하다. 다른 점들도 물론 있지만 대개 축제 장터에서는 먹을 것과 술을 팔고, 어디 벽화 마을이 났다 소문이 나면 흥내 낸 비슷한 벽화 마을이 곳곳에 생긴다. 또 음식에 전문적이지 않은 블로거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개한 인터넷 정보에 의해 부정확한 맛집의 이미지가 계속 확산된다.

가끔 질 안 좋은 파워 블로거들은 기사화하는 대가를 음식점들에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악평을 올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검증 안 된 맛집들은 막상 가서 먹어 보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또 방송에 나가거나 인터넷에서 뜬 곳만 손님들이 몰려들어 주변 상권이 다 죽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아날로그 시대에는 여행자들이 현지인들에게 물어 가며 여행했고, 그렇게 알아내는 관광지, 맛집은 실패할 확률이 적었다. 현지인들의 평판에 의해서 검증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스컴과 인터넷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에는 여행은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정보에 의해 생산된 궤도를 따라가는 행위가 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는 여행자들도 종종 보인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묻거나, 자기의 추억을 찾아가거나, 관심 분야를 쫓아가면서 자기만의 여행을 즐긴다. 자기가 태어난 곳, 다니던 초등학교, 놀던 곳, 외갓집 등 추억이 서린 곳은 자

기만의 여행지가 된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수수한 마을이 오히려 푸근한 여행지가 되고, 맛집이 아니라 평범하고 한적한 음식점에서 우리는 더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행자들은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추억으로 먹는다. 지금, 여가서의 시간, 과거의 시간, 동네 사람, 햇살, 바람을 느끼면 평범한 곳에서도 희열을 누릴 수 있고,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 속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우연과 충동에 몸을 맡긴 채 여행하고, 장소를 초월해 추억과 상상의 세계로 가면 멋진 시간 여행이 펼쳐진다.

어차피 여행 아닌 것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지구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으며, 불꽃 이 세상에 던져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가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변해 가는 풍경·사물·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만 보아도 희열을 느낄 때가 있다. 디지털 시대, 정보가 많은 사회일수록 천천히, 추억과 상상을 넘나드는 여행은 우리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 준다.

〈여행자가〉

커피한잔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으로 혹독한 학습이다.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헌법을 제정하고 삼권분립이란 것을 해서 근대국가를 경영해 온 지 두 세대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다시 이어지는 동안 나의 눈에 가장 강렬하게 들어온 것은 ‘이제 나라나’는 한 표켓이다.

망나니 가장을 둔 가정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를 맺어준 게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악덕 업주가 경영하는 기업이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도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헌법과 규범, 그 이전에 역사와 상식과 전통과 규범이 가로 세로 엮여져 지탱하는 국가라는 공동체에선 이런 일이

최순실 이후를 생각한다

일어날다는 건 해괴하다.

6·25가 발발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내뿔었다. 그는 27일 밤 대전에서 대국민방송을 녹음하여 생방송인 것처럼 내보냈다. 방송국 장비를 충남도지사 관사로 가져오게 한 뒤 유명한 ‘서울사수’방송을 한 것이다. 보좌진들은 방송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권총을 꺼내들고 비밀엄수를 지시했다. 방송을 들은 서울시민 상당수가 피난을 미뤘다. 인민군은 이튿날 아침 서울에 진입했으며 한강 인도교는 폭파됐다. 나라가 이러는 수도 있구나. 각자도생(各自圖生). 요령껏 서울을 빠져나가던가 적지에서 석 달을 견디던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

10년 후 4·19가 터졌을 때 국가는 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했다. 경부대로 가는 효자동 바리케이드 앞에 밀려드는 시위대. 내무장관 최인규가 경부대 경호책임자인 정지경배출신 광역주에게 발포 여부를 묻자 돌아온 답은 “좋은 소라고 있는 것이요 없다. 바리케이드 건너편에서 칼빈소총을 겨누고 있던 경찰은 일제발사를 해버린다.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2공화국은 붕괴한다.

20년 후 5·18이 터졌을 때에도 광주시민들, 적어도 남한사회의 양심세력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이게 과연 나

라냐고. M16과 특전사 진압봉으로 세워진 나라. 광주는 폭도의 도시로 고립된 체제5공화국은 컬러TV와 프로야구와 88올림픽으로 흥정됐다. 그러나 광주의 상처가 있는 한 모든 민주주의는 허위일 수밖에 없었다. 물고문, 최루탄, 보신자살로 삶을 마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이어진 뒤 군사정권은 무너졌다.

그로부터 18년. 이번엔 나라가 거덜났다. 돈이 없는 거다. 알거지 정부의 새 대통령이 된 DJ가 TV에 나와 “원율을 구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이 끊기고 고층아파트를 걸어 올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할 땐 어이가 없었다. 죽어라 일하고 제때 세금 내며 살던 국민들은 뭘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재벌과 학자들과 언론은 그동안 뭘 했다 싶었다. 말쑥하던 기업어문을 닫고 자살하는 기업주가 속출했다. 노숙자가 넘쳐났다. 피눈물을 삼키며 견뎌낸 건 또 국민들이었다.

그로부터 16년. 수학여행 길 고교생들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침몰했다. 충분히 꽃다운 목숨들을 살릴 시간과 상황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대차와 누장구조가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다. 머구민이 온 국토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모두가 숨죽여

울었다.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도대체 이런 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역시 각자도생. 국가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 아반의 세계에 내던져진 두려움이 전 국민에게 각인되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비극이다. 이 꼴을 보고 있는 국민의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할 단어가 없다. 도망친 대통령을 보고 느낀 배신감, 4·19 때의 분노, 5·18 때의 절망, IMF 때의 공포, 세월호 때의 비탄도 아니다. 가장 근접한 우리의 감정은 수치(羞恥)일 것이다. 수치는 때론 모든 다른 감정보다 강력한 상처를 준다. 개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 수치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흘러 최순실 사건은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 때 순간순간 우리는 지독한 수치를 느낄 것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영광만큼이나 상처투성이인 우리 현대사에 또 하나의 군은살이 박힐 것이다. 그러나 어릴 적 치기(稚氣)속에 저지른 나의 잘못이 의식의 심연에 수치심으로 가라앉아 늘 나를 괴롭히듯,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기 고



이 달 주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관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될 의료산업

타이타늄 센터를 구축하고 금형, 주조, 열처리 등 그 기반이 탄탄한 뿌리산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으로 의료산업 성장을 견인했다. 또 타시도와 차별성이 확보된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을 2012년 지역특화산업에서 2014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통해 광주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지역 내 2개의 치과대학과 관련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치과산업을 육성시키고자 2014년 250억 규모의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를 유지하여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센터가 구축되면 우리시가 국내 최대 치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산업에서 인공관절의 수입 의존도가 91% 수준에 이르는 정형외과 분야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지원센터”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포함 250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차세대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산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아울러 광주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택트렌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6억 규모로 콘택트렌즈산업 고도

화 육성사업과 15억원 규모의 조직 재생모사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첨단산업단지에 세계 최고의 연구시설을 갖춘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가 개소되어 전남대학교 연구팀의 기 확보된 기반기술과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의료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최종 수요자와 소비자가 의사로, 병원의 임상경험, 연구역량, 의료 정보가 산업과 연계되어야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시는 산업체, 지원기관, 병원이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서 마케팅까지 체인(Chain)을 형성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관련 기관과 산업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 관련산업 육성에 힘입어 업체수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외지에서 이전해온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기업업의 성장과 집적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의료산업 성장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가능하다 2002년 2개사 매출액 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 129개사 1130억원, 2015년 172개사 2372억원으로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매출액도 연평균 12.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규모도 2012년 288억에서 2015년 44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등에서 60여개 업체가 이전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의 치과교정용 업체인 K사가 첨단2지구에, 수술기구 제작업체인 S사는 진곡산단에, 치과기공장비 업체인 S사가 광주테크노파크에 동지를 틀었다. 또한 정형외과, 콘택트렌즈 업체 등의 광주시 이전과 창업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기업의 집적화의 가속화에 맞춰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4만 8419㎡ 규모로 의료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주 한국광기술원에서 다수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들과 연계한 광·의료 산업에도 중점 지원할 것이다.

의료산업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 요소인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광주시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로 향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전략형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社 說

총리 임명? 대통령 아직도 상황 판단 못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 그리고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장관에 호남 출신인 임종룡(보성) 금융위원장과 박승주(영광)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인사와 호남 출신을 정권 말기 소모용으로 내세워 국면전환을 해 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대통령 하야와 탄핵 등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과 한마디 상의없이, 심지어 여당 지도부도 모른 가운데 기습적으로 개각에 나섰으니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수습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오히려 국민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어찌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하루 뒤로 미루기까지 했을까.

청와대 측은 이번 개각과 관련,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쥐 새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행태가 될 것”이라며 “책임총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중민 전 비상대책위원 대표는 김병준 내정자 인선에 대해 “가장 편한 사

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대통령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으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이런 분노는 국민에게 더 큰 탄핵·하야·촛불을 유발시키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에도 박 대통령의 돌발 행보가 가득이나 꼬인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 3당은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기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진다. 국정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국정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번 개각을 철회하고 3당 대표와 협의를 거쳐 새 총리를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가되 그에 앞서 본인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스스로 응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인맥 정리 없인 문화전당도 못 살린다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문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책 프로젝트인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 비선실세들의 이런 사업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문화창조 융합벨트사업을 지휘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두 개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애꿎은 아시아문화전당만 피해를 본 셈이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에서 편성된 내년도 문화전당 전체 예산(402억 원)은 올해 예산 724억 원보

다 322억 원이 줄어들었다.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는 올해 예산 대비 43%인 328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제 정부는 현재의 문화정책 난맥상을 정리하고 10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문화전당에 올인해야 한다. 우선 삭감된 문화전당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체제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직제 복원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직도 문제부 내에 남아 있을, 그동안 문화체육 분야를 떠 두루룩이 주물러 왔던 최순실·차은택 씨 인맥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無 等 鼓

‘뽀빠이를 부르는 산울림 소리/ 뽀빠이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 뽀빠이를 부르는 상냥한 소리’

정말 오랜만에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많은 이들이 기억할 드라마 ‘말괄량이 뽀빠이’ 주제곡이다. 주인공가 송승 박힌 얼굴에 제멋대로 빠져나온 붉은색 땀은 머리, 발 크기의 두배는 될 듯한 커다란 신발. 여기에 금화가 가득 담긴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도 반짝 반짝 들어올리는 괴력의 소유자. 사랑스러운

‘뽀빠이 롱 스타킹’은 한 때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다. 뽀빠이와 함께 어른들을 골탕 먹이는

뽀빠이와 그림책

당시 뽀빠이 역을 맡은 배우를 둘러싼 괴담이 있었다. “뽀빠이가 사실은 남자이다”, “뽀빠이가 드라마 촬영 중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그녀가 5월 영화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등의 이야기는 꼬마들 사이 최대 화제였다.

‘뽀빠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던 건 오는 6월 광주극장에서 개막하는 스웨덴영화제 덕분이다. 영화제에서는 ‘뽀빠이’를 창조한 스웨덴의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의 뽀빠이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1945년 출간된 책 ‘뽀빠이 롱스타킹’은 그녀가 어린 딸에게 자장가 대신 들려주던 이야기였다고 한다. 1969년 스웨덴에서 TV 시리즈를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방영돼 인기를 모았다.

오래만에 ‘뽀빠이’를 생각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다음날 그림책 한권이 마음을 뽀빠이하게 한다. 존 클라센의 ‘모자를 보았어’(시공주니어)다.

주인공은 거북이 두마리. 길을 가던 거북이들은 둘 다 마음에 쏙 드는 ‘모자’를 발견한다. 거북이들은 둘 모두에게 잘 어울리고 아니까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하지만 뽀빠이 역을 맡은 배우를 둘러싼 괴담이 있었다. “뽀빠이가 사실은 남자이다”, “뽀빠이가 드라마 촬영 중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그녀가 5월 영화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등의 이야기는 꼬마들 사이 최대 화제였다.

‘뽀빠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던 건 오는 6월 광주극장에서 개막하는 스웨덴영화제 덕분이다. 영화제에서는 ‘뽀빠이’를 창조한 스웨덴의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를 다룬 ‘아스트리드’가 상영된다. 추억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